

K-culture의 축제 KCON JAPAN 2025 에서 한글 카페 성황리에 종료

- KCON 2025 JAPAN(5.9-11)에서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대규모 교류 행사에 일본 MZ세대 약 3천명이 참가하여 한글 체험
- 일본에 인기 높은 한국 카페공간을 재현하여 오리지널 한글 자음 열쇠고리를 만들며 한글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및 주일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60년을 짚어질 한일 미래세대간 인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의 10-20대가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화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KCON JAPAN 2025에서 5월 9일부터 11일, 3일간 한글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현지 MZ세대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일본에서 인기인 한국카페에서 한국점원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글 자음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이색체험으로 한글 매력을 전파

KCON JAPAN은 K-POP무대와 한국음식, 패션, 화장품 등 K-Culture를 소개하는 컨벤션이 융합된 한류페스티벌 행사로 10-20대가 주로 참가하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의 한류행사이다.

문체부의 출점부스(부스명 한글, 한잔)는 지금 일본에서 인기인 한국 카페 공간으로 설정하여 점원 역할을 맡은 한국인 유학생과 한국어로 한글음료를 주문하며 한글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한글 음료는 좋아하는 가수나 본인의 이름의 초성을 한글 자음으로 만드는 열쇠고리 체험 꾸러미로 제공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일본인 다나카 아몬씨는 “한국인과 한국어로 이야기해보는 체험이 신선했다. 귀여운 한글 열쇠고리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며 행사 참가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스는 10-20대가 좋아하는 요소인 K-POP, 자신만의 꾸미기 문화, 친환경 제품(한글자음 장식)을 기용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마련되었다.

또한 일본 내 한국문화의 인지도와 인기에 비해 잘못 알려진 한국정보도 많은 바, 10-20대를 겨냥하여 특별 제작한 한국문화 소개 책자를 배포하며 올바른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일한국문화원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6월 17일에는 산토리홀에서 개최하는 한일협연클래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공형식 (+81)3-3357-5970
메일	pr@koreanculture.jp	담당자	나카모토 아이코 / 조은경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VISIT
KOREA
YEAR
2023-2024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 행사 개요

- 행사명 : 한일국교정상화60주년 기념 - 1020 모여라 한국 카페 체험
(KCON JAPAN 2025 부스 출점)
- 기 간 : 2025년 5월 9일(금)~11일(일), 10시-18시
- 장 소 : 마쿠하리 멧세 국제전시장 홀 (지바현 지바시)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주일한국문화원
- 내 용 : 한국 카페 공간에서 한국인 점원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글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매력을 느껴 보는 인적교류로 3일간 총 3천여명이 참가



행사 전경



행사 전경



한글 열쇠고리